

<2012년 8월 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작더라도 목적 있는 삶을 살아라.
2. 커도 목적 없는 삶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지향성도 없고, 마음이 홀어져 사니 얻을 것도 없다.
3. 항상 성자 주님을 앞에 두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4. 항상 성자 주님을 놓고 목적을 구상하여라.
5. 성자 주님을 위한 목적이다.
6. 목적에 가는 데는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은 성자의 욕이다. 성자의 욕과 함께 목적인 성자 주님께로 가는 것이다.
7. 성자의 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를 따라서 그와 함께 목적지에 가는 것이다.
8. 머리는 성자 주님이시다. 몸은 자기다.
9. 작든지 크든지 다 목적이 있다. 깨달아라. 성자 주님이 목적이다.
10. 목적은 열매다.
11. 목적을 만나고 깨달아야 얻는다.
12. 목적에 성자 주님이 안 계시면, 열매 없는 나무에 올랐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내려온 격이다.

13. 성자 주님은 ‘사랑’ 때문에 목적에 함께하셨다.
14. 사람들은 참된 사랑을 그렇게 좋아하건만, 영원한 참된 사랑이 함께해도 그를 찾지 않고 매달리지도 않는다.
15. 성자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존재자시다. 고로 불가능함이 없다. 누구에게든지 사랑의 대상이 다 되어 주신다.
16. 주님은 여자에게는 남자가 되어 주시고, 남자에게는 여자가 되어 주신다.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남자가 되게도 하시고, 여자가 되게도 하신다.
17.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신으로 만들어 현실에 그같이 되게 만드신다.
18. 상대성 이론이다. 상대성 실존이다.
19. 목적은 성자다. 목적을 정하고 목적을 향해 가야 기쁨이다. 희망이다.
20. 목적은 상대성이다.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향해 가듯이 모든 일을 그같이 해야 된다.
21. 사랑하는 자를 만나러 가는 삶이다. 고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과 기쁨이다.
22.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상대성 사랑의 목적이어야 하고, 그 목적은 성자 본체의 사랑이어야 한다.
23. 성자 주님을 목적으로 두지 않으면, 사랑의 상대체 일이 되지 못한다.
24. 사랑은 수백 가지로 행하는 것이다.

25. 기도하는 것도 사랑이다. 말씀 전하고 외치는 것도 사랑이다. 말씀을 듣는 것도 사랑이다. 찬양하는 것도 사랑이다. 말씀을 행하는 것도 사랑이다. 성자 주님과 주고받으며 수수 작용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 성자 주님과 그의 육과 하나 되어 성자의 일들을 할 때, 육이 느끼고 마음과 정신과 영이 느낀다.

26. 행함이 신과 교통이다. 관계다.

27. 대화가 신과 교통이다. 관계다.

28. 깨달음이 신과 교통이다. 관계다.

29. 그로 인하여 얻고, 키우고, 기르고, 빛이 나게 한다.

30. 사랑은 육이 느끼고, 마음과 정신이 느껴야 된다. 성자의 육과 성자와 일체 되어 행해야 육과 마음과 정신이 깨달아 느끼고, 사랑을 받음으로 기뻐하며 느낀다. 그에 따라 영도 성자의 사랑을 느끼고 기뻐한다.

31. 한 가지만 느끼면 곤고하다. 고로 본체와도 일체 되고 분체와도 일체 되어 사랑도 하고 일도 하면서 행하라는 것이다.

32. 육인 분체와만 일체 되어 사랑하고 행하면 영적 곤고가 오고, 영인 본체와만 일체 되어 사랑하고 행하면 육적 곤고가 온다.

33. 육을 가지고 사랑으로 육적 일을 해결하고, 영을 가지고 사랑으로 영적 일을 해결한다.

34. 영과 육 모두 사랑을 받아야 영과 육이 다 만족하고 목적을 이룬다.

35. 본체와 분체는 흙과 물과 같다. 고로 둘 다 받아야 씨도 뿌리고, 나무도 심고, 농사도 짓고, 꽃도 심으며 영육이 이상세계를 이뤄 간다.

36. 사랑을 이성에게만 쓰면 이성에서 끝나고, 사랑을 성자와 그 분체를 사랑하는 데 쓰면서 영원한 사랑으로 쓰면 육이 땅에서도 이상세계를 이루고 영이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사랑의 이상세계를 이루며 산다.

37. 사랑은 사랑으로 얻는 것이다.

38. 사랑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

39. 사랑의 마음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40. 똑같은 돈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먹는 데 쓰면 순간 맛있는 기쁨으로 끝나고, 물건을 사는 데 쓰면 그 물건을 다 쓸 때까지 기쁨을 누리고, 사람을 사귀는 데 쓰면 그에 해당되는 것을 얻으며 기쁨을 누린다. 사랑도 그와 같다. 너희 사랑의 마음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느냐. 그에 따라 육과 영의 결과가 달라진다.